

DONG BANG SHORTHAND

東邦速記

教 本

第 一 卷

官認 東邦速記學院出版部 編

DONG BANG SHORTHAND

東邦速記

教 本

第 一 卷

官認 東邦速記學院出版部 編

目次

緒論

第一章 速記의 定義 ————— 7

第二章 總論 ————— 8

第三章 速記의 起源并 變遷 ————— 12

第四章 手記의 速記의 發達 ————— 19

第五章 手記의 發達速度 ————— 21

第六章 速記의 用具 ————— 24

本論

第一章 總說 ————— 28

 A 速記文字의 原形 ————— 29

 B 速記文字分出의 已分 ————— 29

 C 速記文字의 筆記法 ————— 30

 D 速記習得의 材料及 秘法 ————— 33

第二章 速記文字의 構成法 ————— 37

 A 總說 ————— 37

 B 母音 ————— 39

東邦法式速記

西紀 1973年 2月 日 印刷

西紀 1973年 2月 日 東邦速記學院
發 行

東邦式速記 創案者
李 東 根 監修

서울特別市鍾路區廟洞195
TEL. (73) 1 2 6 6

前建國大學校
同德女子大學
德成女子大學
現東邦速記學院

李 康 賢 編著

社團 大韓速記協會資格審查委員長
法人

第三章 平音 ————— 43

A 總說 ————— 43

(一) 才行 ————— 44

(二) 十行 ————— 46

(三) 斗行 ————— 48

(四) 斗行 ————— 50

(五) 叶行 ————— 53

(六) 叶行 ————— 55

(七) 斗行 ————— 57

(八) 斗行 ————— 59

(九) 斗行 ————— 62

(十) 斗行 ————— 63

(十一) 斗行 ————— 65

(十二) 斗行 ————— 66

(十三) 斗行 ————— 68

第四章 重音 硬音 ————— 70

A 重音 ————— 70

B 硬音 ————— 83

第五章	並符法	85
第六章	數詞 度量衡計의 略法	100
A	數詞	103
B	度量衡計	109
第七章	外來語의 上中下線의 區別	110
A	外來語	110
B	上中下線	110
第八章	省略法	113
A	「 <u>기</u> 」와 「 <u>이</u> 」 그리고 「 <u>의</u> 」의 略法	113
B	疊音符号	114
C	重音符号	115
D	一般所知語	116

머릿말

本建記 創案者 李東根先生의 監修를 맡아
이 小冊字를 速記字의 向學者를 위하여 世上에
내놓게 될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編者는 本法式 速記창안자 李東根先生께서 1948
年 4월에 著述하신 '解放速記'를 1952년에
一般改編敎授하신 東邦建記法式의 編者로서
1953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期間의 一貫
으로 證示한 實務 經驗과 17년간에 걸쳐
각계각층에 試行 實驗하고 있는 速記사
의 試行과 몇개 대학에서 速記학의 직접 敎授
에서 얻은 本法式의 연구로서 法式의 分出課
를 바탕으로 일부 개편과 省略法의 추가로
上 下를 編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 늘
거리고 짧은 것은 本法式도 이인 改訂期에 접어
들었습니다 今年으로 法式을 창간 50주에 내신지
 꼭 25년이 되었습니다 25年補과 오늘이 法式의
文字에도 많은 변천이 되었고 25週年을

많은 오늘에는 언어의 속도로 시대적 변
 권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속도와 併行할 수 있는 法式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組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本法式
 을 습득 사회에 진출한 國會국기사를 中心으로 各
 界各층에서 활약中에 있는 同門現業 국기사의 모임체
 인 東友會를 主軸으로 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法式의 一部改良과 略字略符의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本冊호가 선진외국의 속기책자와 같이
 선명한 印刷冊字가 못되고 경제적 형편상不得已
 프린트冊으로 尙學同誌들에게 倅하게 價를 定하
 야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진외국에서는 과학적 속기모형을 하고 있음
 니어 그 예로 교재에 있어서 속기모본의 活
 用대체 速기사전 速기문자잡자 速도 變음용
 레코드 교육용 환용필필 기타 副教材 등 시청
 각 시설이 具體적으로 되어 있어서 능률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하루 외국과 같이
과학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
기를 학생들 여러분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
이며 本冊亭가 두기학습에 다소라도 크
움이 된다면 以上의 영광이 없음을 생각하
는 바입니다

— 著 者 識 —

緒 論

第一章

速記의 意義

속기란 명칭은 이미 있어서는 一般社會에
적용되고 있는 명칭이지만 初期에 있어서는
그 명칭이 구구하게 불리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빨리 쓸 수 있는
文字(號符)가 속기문자이며 이러한 문자(號符)
를 고안하여 一定한 理論體系에 통일시킨
것이 速記述이다.

즉 다시 말하면 속기문자란 일종의 특정한
문자(號符)를 사용해서 사람의 言語 또는
自己의 意思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짐 없이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第二章

總論

특기란 學術을 一般社會에서는 기술자도
國産된 몇 사람의 專用物인것 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10년후를 소비하면서
敎育 받다은 現在 사용하고 있는 文庫와
같이 좀더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만 할 것
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文庫가 우리의 言語
를 表記하는 符號이면서도 언어와 같은
속도를 갖지 못한 尺蠖이 된 특기술이란 하
나의 기술을 자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知識을
특수의 學術, 특수의 기술로 대하게 되었지만
現在 사용하고 있는 文庫도 우리人間의 言語
한 記錄인 이상 그것보다도 간단하고도 손
쉽게 습득할 수 있는 同時에 言語와 같은
속도를 가진 기록符號가 있다면 좀더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勿論 文庫에는 간 권종이 있어 그 一部에

改竄조차 용이하게 그 시비를 결정할 수 ¹⁹ 欵
는 理由가 있으므로 속기문자를 처조 여
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려니와 언어의 기록으로서 卷軸의
영사기라고 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는 뜻에
있어 그 습득이 간편하다는 점과 아울러
적어도 目下 一般 記事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特殊 術 특수 기술적 立場으로 부터 떠
나서 좀더 널리 대중의 인식에 의한 실용적
技術 視 的 어도 무방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지편으로 모아 속기록이 국회나 각본부
에 걸린 회의 좌담회 또는 방송주머니 등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현상에서 일부 건
해서 일반 사무 방랑면에서도 필요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 속기들이 일반에 까지 응용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도편화할 기회를 현재까지 필요 의지만

우리나라의 一人一技 교육방향이 철저히 실시되어
각급고등학교의 필수항목으로 채택해서 습득
시킨다면 능률있는 과학적 공부를 할수 있게
됨은 勿論이고 一歩 나아가서는 각 사투방면에도
포대한 도움을 가져올 때가 비말의 재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될것이다

즉 모르기 때문에 利用할 때가 있어도 이
유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現下 우리나라의
숙기들의 現狀 으로서 숙기를 습득함으로써
가져오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은 숙기를 體得
하고 있는 曠들만이 스스로 自味하고 있을
것입니다. 現下 숙기들이 가장 有用시 되고 있는
것은 叢會(國會, 앞으로 구성될 國叢·市
叢會 其他 각 기관회의) 에서의 연설에서 각
종 좌담회에 限한 것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법률사무소의 曠보이 體得한다는 것
도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데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曠들며 각 재판소의

書記大法院 高等法院 軍법회의) 이나 ^{111~} 강가에
있어서는 贊成할 바 欲을 것이다 時間의 제한
을 받는 신문, 통신 記者기자와 事務 事務의
전화 記者들에게는 그 능률을 높여는데 있어
서나 취재記者들에게는 그 능률을 높여는데 있
어서나 필기내용의 정확성을 도지하는데 있어서
도 당연히 알아야만 될 기술의 하나인 것
입니다

한편 大學生들이 속기를 練習하여 轉하는 것
은 敎수의 강의내용을 기록하여 두는데 필요성
이 있지만 이것을 반역 하므로서 敎수의 口頭內
容을 窺하고 이를 확실히 머리속에 재기억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도 各 軍部와 警察
의 情報 關係 같은 데서도 그 事實상 말할
필요도 많거니와 警察官에 있어서 人事相
談 相當係나 取調係 같은 데의 秘密 事實
으로 보아 絶대로 필요한 것이며 警察官公
衆의 비서 各 商社 회사 工場 등의 전화 通信 室

222
當係은 이의 필요성을 결단하고 습득 이용한다
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유감스럽게 速記文字
가 散文字와 같이 共通的인 文字가 아니므로 特別
히 그 필요성을 느끼는 者外에는 반드시 습득해야
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이 速記보급을
스스로 지지 시키고 있는 程度에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公認된 것이라면 현재 사용되는
문자보다 훨씬 편리한 言語의 表現이 될
것이다

즉 其獲得과 그 필기 速度에 있어서 보다
실용적인 要素下에 構成되어 있는 것이 速記
문자의 생명이며 가치만 것이다

第 三 章

速記의 기원과 변천

古代 羅馬의 全盛期(西 紀元前 約 80年)
즉 지금으로부터 二 十 餘 年 前 當時의 유명한
음변처를 널리 알리려고 있던 마카스, 달리

아스시세로 (MARCUS TULLIUS CICERO) ¹⁷²란
사람이 兇罪로 사형 언도를 받자 위기를 빌로
그 죄를 면하여 국내의 각지를 遊說하여
연설자들에게 충사하였다

其當時 시세로 (Cicero)의 제자 타이로
(Tiro) 라고 하는 사람이 羅馬文字로서 언어의
頭尾字를 略記 하였으므로 "시세로 (Cicero)
의 연설을 필기하여公表하였다 이것이 세
계 최초의 속기이며 Tiro 씨는 실로 속기의
元祖이다 특자는 필기기를 "타이로 (Tiro)
씨의 창작이 아니고 시세로 (Cicero) 자신의
창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다
영국의 철학자 "찰마"씨의 연구발표에 있는
것과 같이 「타이로」씨가 창작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史說로 되어있는 모양이다
타이로 (Tiro)씨가 창작한 略記法은
(BC43年) T Cicero)씨가 화살양말

²⁴ 時에 Cicero의 강의록과 같이 埋藏되어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5세기 (AD 1588年)에 다시 일반권에 나타
나게 되었다 즉 (참바)씨의 연구 발표에 의
하면 略記法을 사용한 것은 AD 1551年 부터
1615年 사이이며 즉 「에리카제스」 여왕 시대의
일이며 카터 「티모시 브라이드」 (Dr. Timothy
T. Bright) 박사가 고고학을 연구 중 「Tiro」씨
의 方法을 우선하여 발견하여 이것을 기초로 略
記法을 再構成하고 (略記法) 즉 캐릭터리 (characteric)
이라고 題한 서적을 公表하였다 학생에게 의학이
나 多數의 강의를 할 때 또는 자신이 지식을 할
때에 학생의 便의를 도우기도 하고 자신도 其
略記法의 利便을 얻기 위하여 또 나아가
서는 斯界를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Timothy Bright」의 略記法이란
冊이 특기 학상 최초로 출연한 서책이다

다. 「Bright」 박사의 축기학이 축기^{기성}를 발한
의 유도체가 되었으며 그후 19 세기에 「와인스
씨의 暎号略法神学박사 「돈킨」 씨의 신축기법
등이 축출하였으나 이들은 「Bright」 씨와 같은
방법으로 창안한 것이다 18 세기에 「마리너」이
는 새로운 신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이 방법은
「카비」라는 사람이 정부에 청원하여 축기
모름에 노력하는 한편 자기 친척인지들에게도
이를 권고하는등 曁學上에 있어서도 확고한
정신을 하여 연구한 것이다 그후에도 킷
이어 新축기법을 소개하는자 축출하여 번
재에 이르러 구라파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기
법은 실로 260 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축기계의 일대 혁명의
동원자 「아이작 필드먼」 이 있었다

그는 영국 「글로우체스터」 (Gloucestershire)
에 있는 「우텐 안다 아카데미」 (Wooten Arney
Academy) 라는 학교의 교사였던 것이다 AD

415~

1837년에 종래의 기성속기법이 대혁명을 꾀하여 새로이 記音的線狀 필기법을 발명하여 (超音記法) 즉 "Stenographic shorthand" 라는 書籍을 發刊하는 한편 속기학교의 강림 速기문자의 인쇄서적 80 여권을 출판하였다는 사실이다. 실로 종래의 속기법에 遠대 奇蹟을 傳한 유명한 사람이며 현재 歐洲에 있어 사용하고 있는 속기의 대부분은 이 Pitman식의 일파라고 한다.

고로 구주에서는 前記한 「Tiro」 氏를 속기계의 始祖라고 하고 Pitman 氏를 中興의 祖라 한다. 그들의 이름을 永久히 傳하고 있는 것이다. 「Pitman」 씨는 31才에 영국 皇제 「빅토리아」 陛下로 부터 「Knight」 의 勳章을 받게 된 것도 그가 속기계를 위하여 心身적 노력을 다 했었으며 나아가서는 社會文化開闢 上의 大光明을 던져 주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Pitman」 의 초속기법을 發見한 뒤

에도 「화우칼」 씨 「푸라드레」 씨들의 譜式이
출처되었으며 또는 영국의 법률가로 유명한
「시메오 워드 후라크」씨의 이름으로 羅馬算術의
略記法을 公式用樣으로 發表되었고 또 美國
에서는 「크레함」 씨가 T.Pitman 씨보다
종전보고의 法을 추가하여 發表하고 또 New
York 재판소의 속기학사 「아레논」 씨는 完全속
기란 저서를 내고 「앵스」란 사람은 談練簡單
略記法이란 것을 發表하는 등 영국을 위시해서
유럽 프랑스 歐洲各國에서 학자들에 의하여
각종 법식이 發表되었다

각국의 대표적인 속기의 발달 과정을 論
하면 미국에서는 영국의 T.Pitman 씨보다 좀
늦게 1888년에 「존 로버트 그렉」(John
Robert Gregg) 씨가 고안 발표한 「그렉」식이
4수성을 띄고 完全 별리보급 發售되고 있다
불란서 에서는 1651년 「작크 뭇 사푸」의
고안인 記號法을 다시 「에머루 제보드네」 씨

가 大幅的인 改良을 遂히 完改의였으며
現在 [미이] 學公式으로 併語獨기가 가장 많이
보급 盛行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796년에 "카베쿠 스키브" 식이
完改되어 보급되고 있다. 中國에서는 光緒 22년
에 "음음快音"라는 명칭으로 나와 現今 그
것이 개량되어 보급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明治유신의 文化改革과 關係
같이 해서 1882년에 田鎖綱吉가 Graham식
의 分出을 考案 日本語 連記 (早稲
田式)를 고안해서 1900년에 成립된 國회의
제1차 會議 때부터 實用 했고 그 후 中根
正世(나카네)식 新早稲田(와세다)식 參政員
式 衆議院式 등의 追后 研究發表로 普
及되고 있다.

第四章

우리말 축기의 發達

우리나라 축기의 역사는 아주 짧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實用축기라면 戰後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同聲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제의 탄압으로 모든 문화 발전이 저지되었으며. 심지어는 우리말 조차 방해를 받았다. 그런 까닭에 해방 이전부터 우리말 축기가 연구 발표 되었으나, 실제적인 면에서 보급되지 못하였다. 우리말 축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1909년에 "하와이"에서 朴世日氏는 "조선어 축기"를 발표하였고 그 후 1923年 中國 상해에서 金某가 略記法이라 하여 "발작기"를 발표하였고 1925年 7月 1日과 同年 2月 2日 附 時代日報에 方翼煥, 李元祥 兩氏가 「조선어 축기론」을 發表한 후 1927年 1月 號 新朝鮮紙에 김환희씨의 「우리말 축기법」이 發表 되었으며 同年 7 月 8 日 附 身光

200
誌에 유근재씨 고안의 「조선속기법」이 發表
그 후 1935年 6月18日 부터 同年 7月28日 까지
매일 申報에 趙駿遠씨가 「조선어 속기법」을
發表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諸法式으로는 實用과 보급
에 便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45年 8.15 해
방과 더불어 新學研究者들은 이대를 기하여
우리말 속기법 등을 發表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비로서 속기사 양성의 實을 보게 되었다.

최초로 1946년에 上記한 바와 같은 姜君원씨
는 종전의 方式에 一改良을 加하여 「서훈식」
이라 發表 하였고 張基泰씨의 「濬波式」 朴
松氏의 「朝鮮式」(現韓國式) 金天漢氏의 「高
麗式」 등을 같이 하여 본 속기법식의 창안자
이동근씨의 「해방식」(現東邦式) 속기법 등을
연구 발표하여 各法式 다 서울에 建記
士 양성소로 속기전문학관들을 설립 후대
양성에 진력 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지방에서 故金世鍾씨의

世宗式) 등 외에도, 참안후 보급된 ¹²⁴ 특기식이
있다 그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746년 민의원
개원과 더불어 특기사가 등장 하였으며 그후 1948
년 3월 2일 초법 憲院의 개원으로 패도에 모르게
되어 군부 언론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제의 실
시로 지방의 회등에서 활용 하였고 -人-技
교육으로 '실업제' 일부 교교에서도 특별활동
시간에 특기화를 채택 강요하게 되었다

오늘에 와서는 공복종기관과 右軍 및 右院
연관 사무면 에 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실업제
고등학교에서는 정칙과목으로, 대학에서도 敎科
으로 교수하게 이르렀다 특히 정부에서는 특
기협회에 국고 보조금 까지 지원 기술개발과 보급
를 돕게 되었다

第 五 章

우리말 發音 速度

사람의 發音速度는 결코 일정하지 않다
時時同의 發音速度도 사람에 따라 또는 장소
시기에 따라 甚은 相異되는 것이다 즉, 가

~22~

장 통상적 예에 있어서 우리나라 戊午男子의
면설로 一分間에 쫓히는 언어수는 약 200 후
까지 300이 보통의 文字敎에 상당하는 數로
되어 있다. 또 실제에 있어서 正家 / 시간의
면설을 속기하고 이것을 보통문으로 變文하면
400자 원고지 35~45 枚가 된다.

즉 1시간에 14,000자 나지 18,000자의 보통
문에 상당하는 말을 쓴 것이 된다.

이것은 1分間에 평균 230~40자로 부터
300자가 되는 것이다. 女자는 대체로 남자보다
빠르나 평균적 통계의 의하면 과히 큰 차는 없다.

우리말의 발음속도는 대체로 上韻과 4디하드로
속기들은 1分間에 보통문자 환산 300자 / 초
간에 5字 内外의 필기 주도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말 頻度 調査表

우리말 말수 使用의 發기 조사 두째 女음에

나타난 총합계 190,106자의 조사에 나타난
것이다

統計表

가	가	가	가	고	교	구	구	구	기	합	2
348	32	1889	1,014	5757	336	1768	32	3281	2565	26781	
나	나	나	나	노	노	누	누	누	니		4
400	90	217	371	1,143	11	435	1	5831	2109	4966	
다	다	다	다	도	도	두	두	두	디		8
8605		144	3	4609		85	2	249	191	73244	
라	라	라	라	로	로	루	루	루	리		5
3692	200	1225	829	2491	51	160	23	2909	1386	14482	
마	마	마	마	모	모	무	무	무	미		6
462		43	829	2691	51	160	123	2109	1884	13901	
바	바	바	바	보	보	부	부	부	비		9
3128	8	260	144	1874		1921	2	47	609	8763	
사	사	사	사	소	소	수	수	수	시		3
4523	3	4526	96	1858	31	1309		814	2926	5886	
아	아	아	아	오	오	우	우	우	우		1
283	155	2203	2625	2536	408	3068	452	8376	2526	45136	
자	자	자	자	조	조	주	주	주	지		6
3130		3130	204	1429	55	1511		184	4722	4429	
차	차	차	차	초	초	추	추	추	치		
803		722	124	307		409		38	1026	3429	
카	카	카	카	코	코	쿠	쿠	쿠	키		
63		40	59	119		8		243	127	669	
타	타	타	타	토	토	투	투	투	티		
570		390		355		75		26	6	1632	
타	타	타	타	포	포	푸	푸	푸	피		
453		99	359	50	121	362	19	69	246	1948	
차	차	차	차	후	후	추	추	추	히		
246	108	243	363	1029	111	232	31	378	481	1259	

124~
위의 算中 量(검소리)은 속기문자의 두
음에 가까운 文符에 가산한 것이다

第 九 章

속기의 用具

속기의 用具는 간단하다 속기노트와 硯
이연된다

속기문자로서 속기노트가 가장 적당하다
초보자는 검으로도 가하되 용지의 크기는 3
절자로 2, 30枚式 한 구름이름 구리브르 /
권씩 철해서 쓸이 좋다 자질이 나쁘면 속도
를 내는데 지장을 받는다 필기시 글씨는 평
우도 있다 表面이 반지르면 硯필이 안의
어 위 손이 피로해 지며 누런종이는 속기부호(暗
符)인點 "음자" 등이 선명히 나타내지 않아 辭
文時 脫字나 오자가 되기 쉽고 너무 거친종이는
硯필이 잘 갈아 쉬 두디게 되어서
속기시에 자주 硯필을 갈아야 안 되는

수첩을 가져오며 속기들은 보통은가로 ²⁴
변동할 시에는 대개 번고지를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속기사가 타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필에 있어서도 연필속(번)이 연필
(HB) 또는 B₂ 번 적합하다. 연필의 형은
유필본 사용함이 좋다.

유필의 연필은 속도에 부적합하다. 왜냐
하면 천천히 연필로 장시간 필기 하면 손이
떨어나서 자연히 마오리지며 힘을 가하면
연필이 들게 된다. 흔히 "샤프"로도 사용한다.
"샤프" 사용에 있어 철재로 된 "샤프"는
피하는 것이 좋다. 광량이 있어 쉬 피로해
진다. "샤프"는 "세로로이드"로 된 가벼운
것을 사용함이 좋다. (속기용 연필은 제외)
보통 연필은 사용 적과과는 할 수 없으니
필기시 글자도 제대로 안사질 때가 있다.
"볼펜" 사용도 하니 연필의 경우와 같다.
특히 초보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126

筆記本은 새끼손가락을 종이위로 내치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문자는 前章에서 說明한바와 있지만 英文과 같이 橫書하게 됨으로 이런버릇을 고쳐야 한다 또 필기시의 나쁜 습관으로 필요없는 점을 꼭거나 힘을 툴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버릇도 고쳐야 한다

고무 사봉은 달할 나위도 없다. 편필 주는 법은 보통문자 쓸 때와 같은데 되도록 힘이 짧게 쥐고 힘이 풀다 편필속(면)의 면은 약 1분 내지 2분 정도로 하고 두디게 될 때 까지 한지류의 편필로서 15~20분 간 쓰기할 수 있어므로 장시간의 쓰기 시에는 편히 3.4本の 紙를 준비해야 한다

특기의 보존은 죽는에 생명이 있으므로 上記한 諸點 들은 참고해야 된다

특기시의 자세는 바르게 가져야 하며 종이 를 冊上위에 놓고 쓸 때에는도 다른 종이 나

야 한다.

187.

특기문자의 구성은 길이와 각도의 방향
위치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用紙를 비탈게
놓으면 誤讀하기 쉽다

本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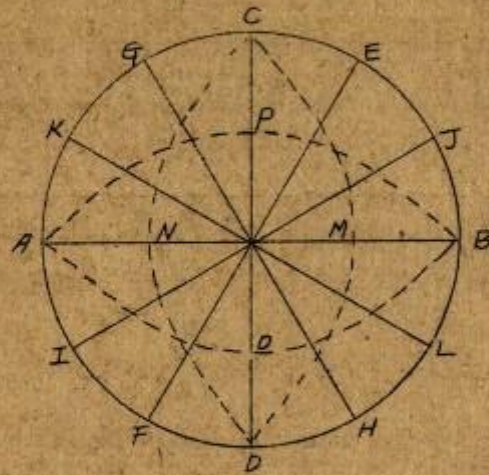
總論

죽기틀이란 사람의 발음을 사진적으로 찍어내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누락이나 오가없이 발음되던 그대로를 文書化 시켜내는 기틀이다. 그러므로 前章에서 기틀된 바와 같이 1층당 25음피치의 發音을 필기한다는 사용되는 문자의 형은 가장 적은 획수인 - 획을 이상적으로 하여 모든 문자를 한개의 선으로서 구성한 - 음-筆主義에 注力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식 죽기틀자의 字形은 - 卍을 12 筆수한 10개의 직선과 - 卍의 수직에 의한 卍의 隨卍形과 圓形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한글보다 쓰기가 더 간편한 것으로서 어떠한 음이라도 - 劃으로 쓸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符號와 字形은 죽기틀자란 칭하고 이 符號를 만들기 위한 卍

은 측기문자의 解形이라 稱한다
 解形 으로 부터 又호를 辨는 것은 分出 이라고도
 한다

A 측기문자의 원형



B 측기문자의 分出

- | | | |
|-------|-------|---------|
| 180°가 | ————— | AB의 直線 |
| 180°나 | ⌒ | AOB의 曲線 |
| 60°다 | ↘ | EF의 斜線 |
| 60°라 | ⌒ | MD의 曲線 |

180° 아		H P B의 曲線
60° 30° 아		A D "
60° 아		C A "
30° 아		D B "
30° 자		A P "
30° 차		J J의 斜線
90° 카		C M D의 曲線
30° 타		C B "
90° 파		C N D "
30° 하		K L의 斜線

文字의 쓰는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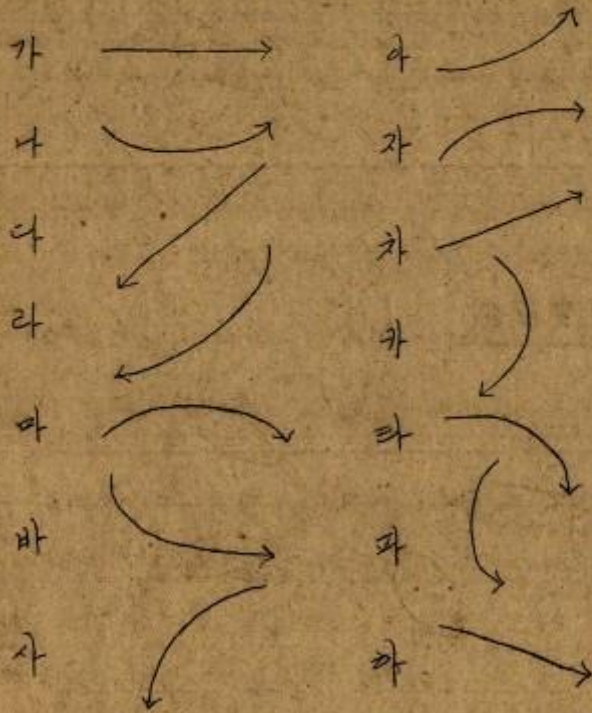
속기문자는 영문과 같이 좌로부터 우로
 橫書한다 한자한자 레이어셔도 쓸기 못하고
 갈게 되서 레이어도 판단기 곤란하다 면이나
 속기는 결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활동
 임으로 文法 고려할 필연이 없고 주장에
 빠지지 말고 행동성 있는 요령적인 쓰는法을

중요하다.

13A

주의는 있는데 사람의 언어를 들림없이
배치지 않고 알기 쉽게 그리고 흐름 같은 目的
으로 한다.

1. 各行分出線의 쓰는 方向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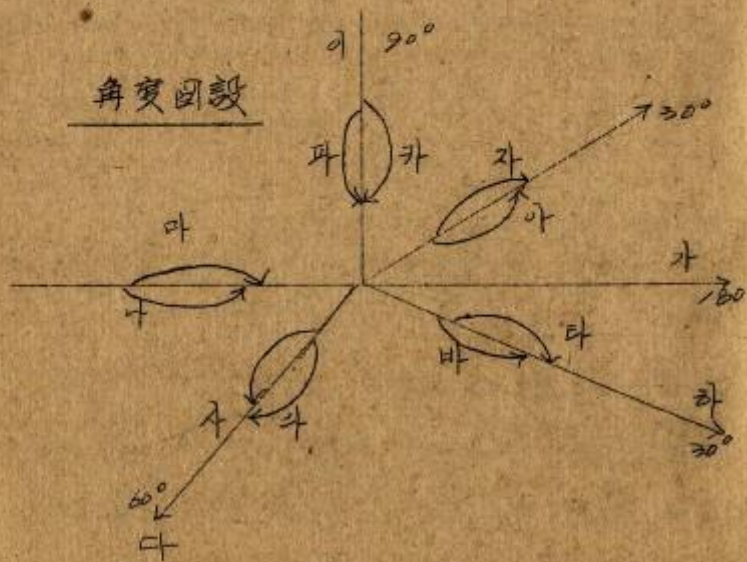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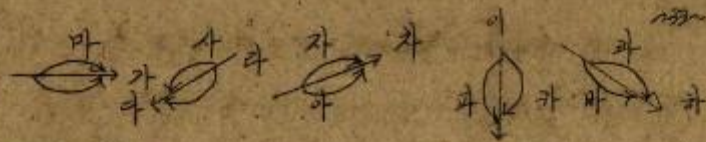
132~

2. 文字練習법

가나다라... 하를 압으로 위는
동시에 움직여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復習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練習法



위의 方法에 의하여 毎日 이한 程度으로
 練習 하라야 한다

D. 속기 습득의 세가지 秘法

보통문의 文字數로 換算하여 一分 안에

300자 이내를 말하는 속도의 변별을 능히 기록하며 이것을 완전히 보통문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면 벌써 일류 속기사의 실력을 구비하였다고 하겠다.

300자까지 도달하려면 꾸준한 인내성으로서 확실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演士의 말을 이해하고 빠른 글로서 보통문으로 언문하려면 高手 정도의 학식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속기사로서의 최대 필요條件은 무엇이냐 하면 연습에 태만하지 않는 꾸준한 노력의 인내력이 강하여야만 된다.

속기사가 빨리 되는 秘法은 이렇다. 첫째는 연습이고 둘째도 연습이고 셋째도 역시 연습인 것이다.

속기사는 말을 커로 듣지 않고 손끝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속기는 思考의 產物이 아니고 反射的 운동의 產物인 까닭이다.

우리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나음으로 分析하여
그음을 表現하는 文字를 생각으로 發後
頭腦가 運動神經에 命하여 文字를 써 나가
는 것은 아니다 「聽部書」 라는 것과 같이 심리학적
으로 反射運動과 같이 양이면 안된다

숙기법은 吾人の 限 있는 능력의 연마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이다 고로 그 의도
는 연습 이외에는 全無한 것이다

숙기문자의 형태를 기억하거나 쓰는 方法의
특수한 것으로서는 하등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숙기법의 실질적 효과를 얻으려면 反射的
直覺的으로 文字를 쓸 수 있게끔 연습 또
연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습은 처음 기본문자
에서부터 들어가 終局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습은 처음 基本文字에서 간단한 級字연습에서
부터 조금씩 세워야 한다

그러하여 이 基本文字가 自由自在로 쓰게되면
신문 잡지 서적 또는 각종 회의록을 가

136
1. 2. 스스로 默読하면서 要領을 정리 級
후를 연습함이 좋다. 一分間に 약 200 자의
水準에 도달하면 서서히 Radio 강연 演說들이
실제 연습에 들어간다. 특히 速記 연습이 능
률적이며 소질을 가진 노력가라면 연습에
흥미를 본다. 짧은 시간에 성공할 것이다.

<註> 下記點은 필자가 1년간의 速記사로
서의 실무생활과 教授中 體驗한 바로서
초학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一. 연사의 말을 내가(速記사) 이해 함으로써
보통문으로 變換할 때 용이하게 됨으로
항상 상식습득에 노력한다.

= 國內外 情勢의 움직임을 확실히 알아
야만 示文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시시각각으로 變換되는 국내외 政世를 파악
한다.

三. 速記時에는 연사의 발음 내용 요점을 파
악하면서 速記하는 연습을 많이 도록 한다.

第二章

숙기문자의 構成法

A 總說

本 숙기문자는 숙기의 최대목표인 숙도를 가장 간편한 方法으로 한자의 新으로서 우리의 모든 聲音을 그대로 一音 一單字로서 寫記할 수 있게 28/字로 構成되어 있다.

이 기본문자를 大體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平音 140字 硬音 50字 重音 84字
받침 7字로 構成되어 있다.

前項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숙기는 思考의 產物이 아닌 實踐에 과도하게 文法이나 形式에만 치중해서는 안되며 練習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本 숙기 기본문자는 一音의 音 단위로 構成하였다.

※ 練習은 먼저 이 基本文字로부터 始作

138~

하여 즉기문자의 綴寫 연습에 全力을 경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즉기文字의 波動
의 정도나 (각도) 역선의 방향등은 어느 즉기
문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필기함에 있어서도 특히 正確
를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도에 弊病이
있는 즉기 이므로 즉기문자는 조금 잘못하면
誤解하기 쉬우며 약간의 선의 장단에 의
하여 각각 판이한 뜻을 表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精確하게 필기 하셔야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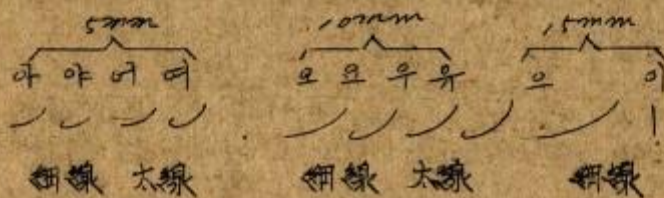
그리고 한자 한자씩 寫體를 갈 쓰는 것도 중
요하지만 二寫以上の 綴寫를 完滿한 程度
까지 쓰는 것은 더한층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文字 寫體
를 단시일內로 기피하려는 癖을 내지 말고
本教本의 手本에 따라 每日 1시간 이상
3시간까지 꾸준히 練習을 하고 약 20여일간 練習하면

全文字를 기억할 수 있고. 이런 ^{방법}치법으로 개발
 년습한다면 하루에 적어도 30항 이상의
 새로운 文字와 略符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B 母音

母音은 앞서 第一章 속기 기본문자 원형
 에서 分出한 (DB) 의 곡선이며 길이는 < ㅏ ㅑ
 ㅓ ㅕ > 가 5mm < ㅗ ㅛ ㅜ ㅠ > 가 10mm < ㅡ ㅣ > 가
 15mm로 되어 있다

母音의 아行은 곡선이며 그 각도는 30度이다
 特히 아行은 第一章의 속기문자 필기법 第
 1項에 圖說해 놓은 것과 같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 쓰는 것이다. =음 이상을 綴字할
 때에는 如하한 때에도 接續點이 사이를
 두기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母音의 圖說



기의 圖說에서 보는바와 같이 <야>는 <아>形
의 光帶에다가 半小冊을 惠給시킨것을 말 수
있으며 (가)에는 (나)를 곱거 太象으로 表하고
(나)에는 (다)를 곱거 (1)에는 (나) 예를 二倍
(1)는 (나)의 二倍 (2)는 (가)를 二倍 (2)는
(다)를 二倍 (3)는 (가)의 三倍 (1)는 (나)의
三倍라는 것을 알수 있다.

(6) 등은 特別文字로서 5mm 수직으로 쓴다
이상은 單尺(아)행에만 限한 것이 아니라 「가.
나.다.라.다.바.사.가.카.타.파.하」 各行에도 이와
같은 寸으로서 적용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

이와 같이 「가」에서 「크」까지의 길이 「1」에서
「지」까지의 길이 「-」에서 「1」까지의 길이와
「가」 「-」의 폭선 「크」 「지」의 半小冊 크기
「가」의 太象만 應用해서 文字(머리글자)
만 알면 무릅 100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各行이 적용되는 寸서는 次順에 설명 하기로
한다

「이」와 「안」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보다 실리적인 효율을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은 特殊文法으로 쓴다

綴寫의 例 圖說

아우 오우 아우우 아아우우 어이
 ~~~~~    ~~~~~    ~~~~~    ~~~~~    |  
 아이    오이    아우    어이    우아    어우이  
 ~~~~~    ~~~~~    ~~~~~    ~~~~~    ~~~~~

(C) 練習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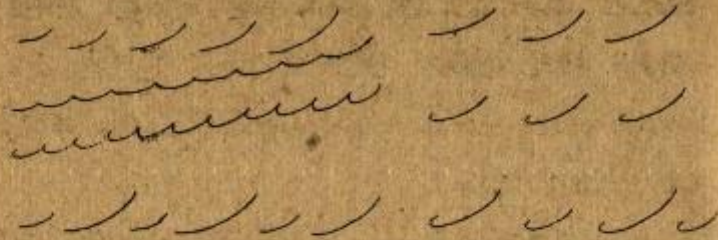
이 行에서 주의할 點은 각도가 30度^{以上}
 처음에는 15度 60度로 되기 쉬우나 30度 각도
 를 정확히 쓰기에 힘써주길 바란다

(1) ~~~~~ (2) ~~~~~

4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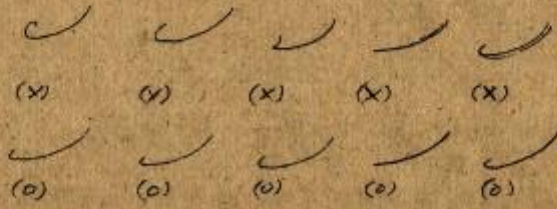
(3)

(4)



(3) 半小円과 太線을 구분하여 쓰기가 아주 不自然 二려울 것이다 그러나 차차 手熟함에 따라 半小円과 太線을 分畵 아니하도 두양하게 될 것이니 手熟할 때 까지 (200 字 수준) 努力 바랄

(2) 半小円과 太線의 正誤表



위의 圖說에서 보는바와 같이 本 手기에 있어서는 太線인(一丁TT)의 正誤의 쓰는 法은 太線이라하여 = 重으로 그위에 덧

그런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大線의 쓰
는법은 細線으로 된 及文字를 可及的 變換
가볍게 쥐고 변하게 쓰고 大線의 문자를 쓸
에는 약간 끈에 힘을 주면서 쓰면 그文字
는 깊하게 된다

이 大線, 細線은 초보시에 있어서만 別
區別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 소멸되고
全部 細線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細線으로 쓰면 1)가
되는 것이니 兩者中 하나이므로 文章의 骨
骨를 살펴보면 어후인지 어후인지 자연
판단케 되는 가독이다

第三章

平 音

A 總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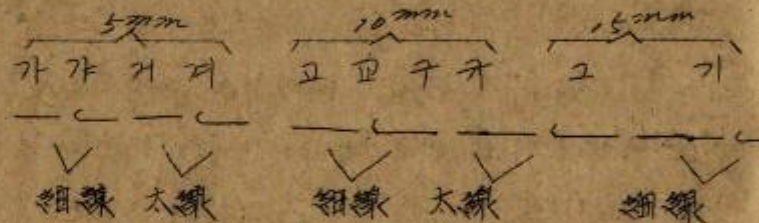
前章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平音 14음도
文字形에 따라(卡키노지)의 半小冊

과 (가)의 太線 (H-F-11-1)의
曲線의 8分으로 되어 있다

(가) 行

(가) 行은 楕圓자 원형의 (A B)의
分出 직선으로 되어 있다

< 速記 文字 >



(가) 行은 說明을 要하지 當의 例만큼 쓰기가
간단한 것이다. (가) 行의 구성은 楕圓 (A B)
를 직선으로 180° 선인 것이다

(가) 行에서 주의할 점은 正反對되는 點은
직선으로 出發한다는 기법으로 單숨에 半小月
을 그리면 정확한 半小月이 그려진다

A 各行의 綴字法

1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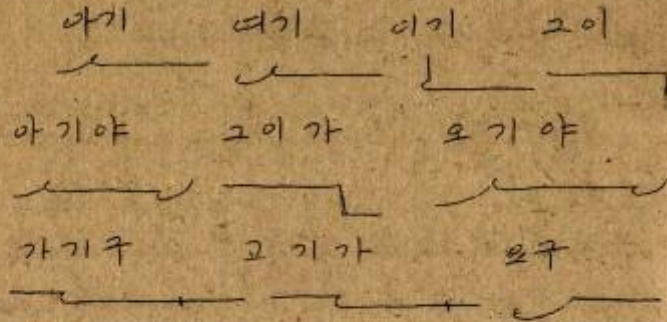
고 기 고 교 기 고 교 기
 ───────────────────────────
 가 가 그 기 저 주 가 고
 ───────────────────────────

綴字의 連續에서 주의할 점은 예를 들
 어(고가) 두자를 쓸 때 그냥 이 두자를 선별
 시켜두면 (고)의 한자로 하기 때문에 두후
 인 경우에는 그 文후의 길이에 해당되는 곳
 에 짧은 선으로 절단한다 이와 같은
 절자법은 (가디차하)의 직선으로 구성될
 行에만 국한하여 사용한다

初歩時에 있어서 (고교)와 (그기)를 구별
 하기가 곤란한 듯한 경향이 있으나 이것
 은 연습만 충분히 하면 문제 되지 않는 것
 이다 초보시에 있어서 이를 연습할 때는 (그
 가)의 길이를 기억한다 약간 길다는 점으로 쓰면
 (고교)와 (그기)와의 구별은 뚜렷하게 된다

446

(B) 아행과 가행의 연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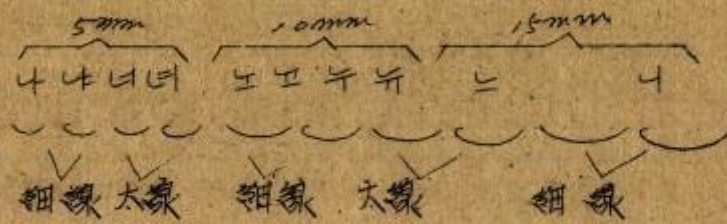
(C) 변습문제

- | | | |
|--------|--------|--------|
| 교기(校機) | 기이(奇異) | 이가(移家) |
| 구구(區區) | 이구(異口) | 야구(野球) |
| 야기(惹起) | 우기(雨氣) | 거취(君薨) |
| 녀가(此羸) | 교우(校女) | 기우(杞憂) |
| 고우(固有) | 교가(校歌) | |

(=) 4行은 원형에서 분출한 (A0B)의
 문제이다 이(나)행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4
 행의 깊이(深度)가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深度가 너무 얕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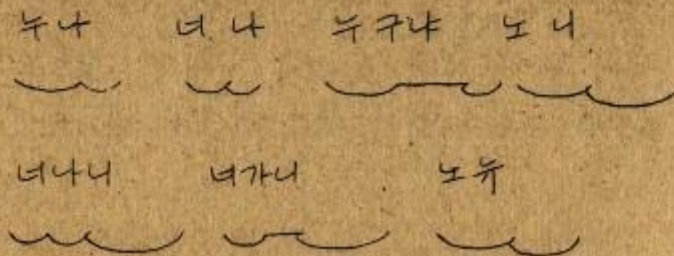
도(가)행과 오체하가가 곤란해 짐으로 ⁴⁴⁷최저한도
의 곡선미를 유지하면 된다

速記文字



(가)행의 太線과 半小用 쓰는 법은 (가)행의
太線과 半小用 쓰는 법과 同一함으로 說明을
略하기로 한다

(가) 나행의 綴字法



148~

(b) 가아나 行의 연결법.

| | | |
|-------|-------|-------|
| 누구요 | 아니요 | 가나요 |
| ~~~~~ | ~~~~~ | ~~~~~ |
| 가나니 | 보나요 | 가나니 |
| ~~~~~ | ~~~~~ | ~~~~~ |

(c) 연습문제

가나니 누가 누나가 아니요 여가보
 고요하구니 여기나 나요 너나 누가 나가요
 기어이 가누니 누가오니 누나오니 누나가

(三) 다 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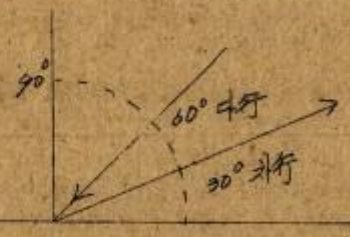
(다) 行은 원형에서 분출한 (EF)의
 斜線이다. 그러므로 그 각도는 60度이다.
 그리고 쓰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쓴다.
 다 行의 小字幅도 나 行과 마찬가지로 이다

〈速記文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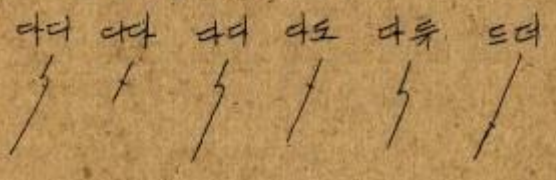


특히 4行에서 주의할 점은 初學者는 60度의 각도를 90度로 쓰는 때가 많으므로 유의하도록

a) 4行 쓰는 方向의 圖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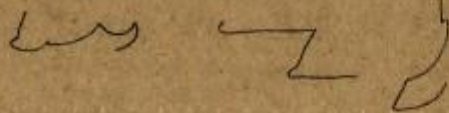


b) 4行의 綴字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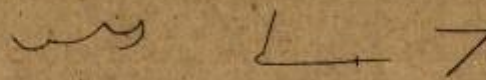


(c) 아가나다의 연결법

아녀오녀라 기도교 이려다오



나오녀라 도기가 구두



(d) 연습문제

유도(誘導) 도의가(道義家) 기도(企圖)

구두(龜) 고도(孤島) 거두(巨頭)

야구러러가다 아나이다 드디어 너도 가고

오도다 거두어다오 두어오 다가오다

(四) 라행

(라)행은 원형에서 분리한 (MD)의 곡선이며
각도는 60° 이다

그러나 라행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다
라행의 각도가 정확치 않으면 (아)행과

42-

(1) 述記文字

라라 러러 로룬루류 르리



前項에서 記述한 바도 있거니와 (라) 行의 각도(60度)를 정확히 하여야 하여 각도가 30度로 되면 (아) 行과 혼동되기 쉽고 90度로 되면 (카) 行과도 혼동되기 쉬우니 만큼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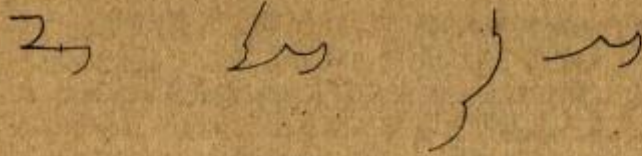
(a) 라 行의 綴字法

라리 라류 르리다 르라리



(b) 아가라 다라의 변필법

거러가거라 도라오녀라 이리르 오녀라 78



(C) 연습문제

우리나라 다녀오녀라 도라오라 도라오리다
도라가나이다 가거라 도지기 이리오라
기다리다 거러가리 바리나라 기다려라
나려오녀라 아나이다 다려오라 다라나이다

(五) 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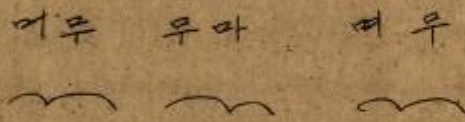
마저는 원형에서 분출한 APB의 곡선이다
여라서 (나)저와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
(아)저의 길이는 (나)저에서 설명한 바와 어한
가지로 가급적 深度가 알아야 하며 半小用을 풀이는
것도 (나)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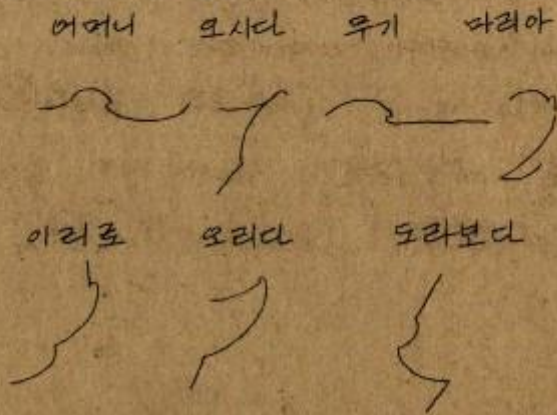
(筆法文字)



(a) 4행의 綴字法



(b) 4행의 연결법



(C) 연습문제

머리(頭) 가아나(か) 무리(群) 기묘(微妙)
무로(無料) 쿠모(規模) 어머니(母) 의무(義務)
무의미(無意味) 노리(諾利) 유무(有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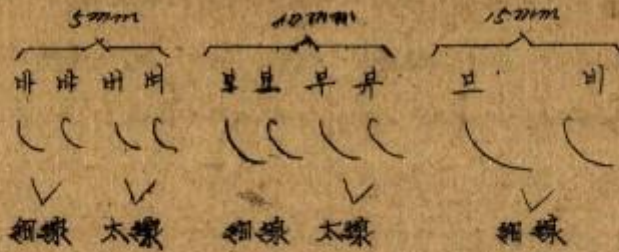
어머니가 이리로 도라오시다
유모가 아기다라고 도라오시다

(2) 비행

(a) 行은 원형에서 분출한 곡선이며 각도는
30도이다 60°까지 되어도 상관이 없으나
특히 주의할 것은 각도를 너무 알리라야
(b) 行과 유사하게 되거나 혹은 각도가 너무
높아서 옆으로 바뀐 (c) 行이 되지 않도록
특 할 것이다

(d) 行 역시 곡선이나 만큼 곡선미를 유지
하여야 한다

<速記文字>



※ 바행의 半小冊도 (리)행과 正反對되는 位置의 30度の 짧은 線으로 始作하면 된다

(a) 바행의 綴字法

바보 비보 버비 버부 보부



(b) 바행까지의 連結法

키기바오 이리바오 비가오나



(C) 편음문제

나비야 아리요녀린 이서 우리 가자
 어부(魚夫) 나비(蝶) 거부(魚附) 거부(拒否)
 미비(未備) 구비(貝備) 부부(夫婦)
 이비(耳鼻)

(七) 사행

사행은 원형에서 분출한 (C.N)의 꺾임이며
 각도는 60°이다 특히 사행에서 구의발 것은
 정확한 60°를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다음에 배울 (자)행과 혼동하기 위
 운 까닭이다

(표 記 文 字)



× 사행의 半円도 (자)行 正反對되는 위치의 60°
 에서 出發하여야 하여 斜線이 되지

서행~

상게 曲線美를 維持하면 된다

(a) 사행의 綴字法

사수 수사 수시 서사 사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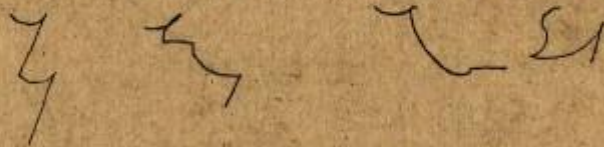


(b) 사행까지의 建綴法

소나비가 아니오다 우리사우가 가다



너도 나도 어서가보다 나비가 수려오다



(c) 사행까지의 연습문제

어서다 오사다 그보다도 나비오

사라나지니 오도바미 사러가자

서기(西紀) 비서(秘書) 시사(時事) 소비

(消費) 보수(報酬) 가수(歌手) 다소(多步)^{29~}
 서서(徐徐) 수사(搜查) 이사(移舍)
 무부(受付) 기사(記事) 기수(技手) 기소(起訴)
 사고(思考) 고소(告訴) 도시(都市)
 무시(無視) 수리(修理)

(八) 자행

(자)行은 原形에서 分出한 (AP)의 곡선이며
 각도는 30度이다

이(자)行은 그 形体에 있어서 前項(사)行과
 同一하다 그러나 쓰는법에 있어서의 兩者는
 根本적으로 相異되는 것이다

즉 前項(사)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쓰는
 것이다 이(자)行은 이와 反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 쓰는 것이다 또 각도에 있어서도
 (사)行은 60° (자)行은 30°이다 그러므로 이(자)行
 과 連續되는 文字는 반드시 (자)行의 末端(表
 面上에서는 上部)와 連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絶대로 混동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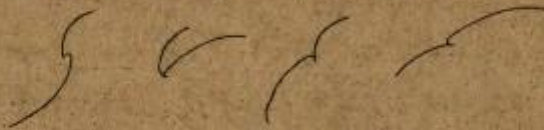
260~

(a) 사행과 자행의 비교

가사 카자 오자 오사 가자고 가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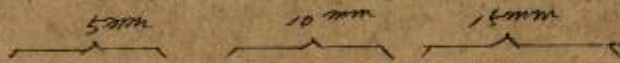


수리 수지 수시 주지



<建範文字>

자자 저저 조조 주주 고지



* 자행에 있어서 (자러조유)의 字는 실제로 사용치 않는다 따라서 (자)行中 半小冊이 있는 文字는 오직 (지) 뿐이다

(b) 사행과 자행의 차이 圖解



(c) 자행의 綴字法

자주 조지 거조지 처자조



(d) 자행 까지와 重綴法

자주오시오 아기가 가자고우오 아주머니



(e) 연습문제

아리에서 주시오 자기주머니 아기주시오

자유(自由) 거주지(居住地) 도주(道夫)

자수(自首) 자가(自家) 자미(滋味) 주조(酒造)

조사(調査) 지도(地圖) 사자(獅子) 보조자(保助)

시조(時調) 소지(所持)

이주(移住) 조모(祖母) 구주(改州)

지구(地球) 조수(潮水) 야주(豆州)

주지(周知)

v62

(1) 차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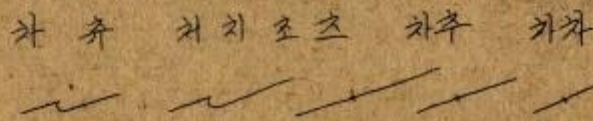
(1) 행은 原形에서 分出한 (I, J)의 斜線
이며 각도는 30度이다 이 (1) 행도 外觀上 寫形
은 (2) 행과 同사하여 兩字의 차이점은 (1) 행
에서 圓說한 것과 같다
쓰는 법은 아래에서 寫로 쓴다

<連記文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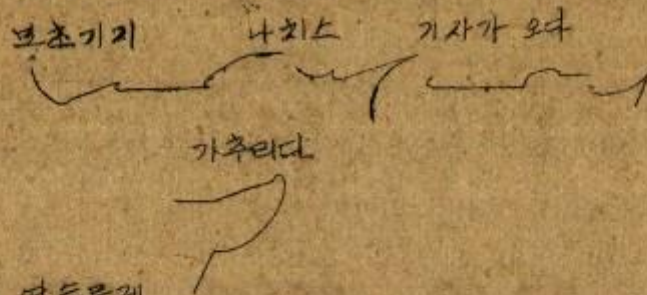


* (1) 행 中에서 (차, 조, 츠)의 4字는 실제로
사용치 않는다 따라서 (1) 행의 半 사용이 있는
文字는 오직 (차) 뿐이다

(2) 차 행의 綴字法



(b) 차행 미지의 連結法



(c) 면승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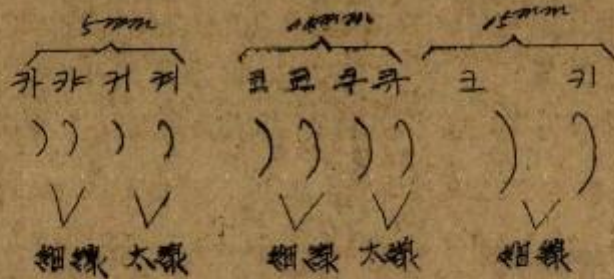
러기 기사가 오시다 추리가 오다 조차하라
 기초(期初) 차차(次次) 시초(始初) 처지(外地)
 무차(牛車) 수차(羞恥) 마차(馬車) 비치(備置)
 처사(知事) 유지(維持) 부처(夫妻)
 기초(基礎)

(d) 카행

카행은 원형에서 분출원(CMD)의 특성이
 이 각도는 90° 이다 이 카행은 (나)행이나
 여행과 같이 너무 삼도가 깊어지면 끝이
 짧아진다 卽 半小円의 中間의 水平線에
 걸려야 한다

264

<連記文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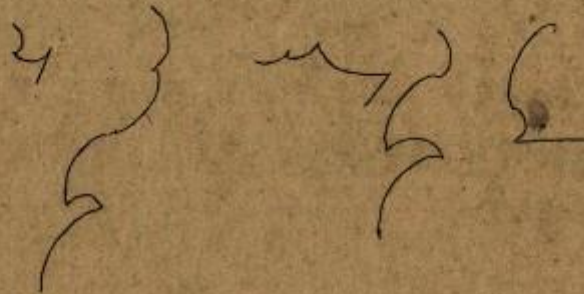


· 이(아) 行도 (카키코쿠) 의 4 字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카) 行도 半小 卍 이 있는것은 (키) 字 變 이다

(2) 카 行의 綴字法

(6) 카 行 까지의 變換法

카나디 크리스마스 에버브라운스 시카고



(2) 연습문제

바다로 가서 노자 아카오가자 에사가보자
사카이 우쿠리이나 카나리아 크라키보리가자

(十一) 타行

(타)行은 원형에서 분출한 (CD)의 극선이며 각도는 30도이다. 따라서 (바)行과는 正反射이다. 그리고 이 (타)行은 실제로 그리 사용되지 않는다.

<建記文字>



4) 타行의 綴字法

타터 터투 토타티 투투



이하

투자 타도 투수 투지



(b) 연습문제

추어모 투표 하러가자 투시도 사투리

투지 라디오 드러보자 타자기 기타

타처(他知) 토이기(土耳其) 투자(投資)

기타(其他) 투기(投機) 투하(投下)

토로(吐露) 토지(土地) 자타(自他)

구타(殴打) 수도(水土) 타도(打倒)

(十一) 파행

(파)행은 원형에서 순회한 (CND)의 곡선
이며 각도는 90°이다 따라서 前項(가)
행과는 正反對되는 선이다 이(파)행도 (가)행
과 같이 半小冊이 있는 파행은 그 半小冊의
中間이 수평선에 걸리도록 해야 한다
이(파)행도 (파.류) 두자는 실제 사뭇치 않는다

<速記文字>

157

| | | |
|---------------------|-------------------------|-------------------|
| 파파 피피 | 포포 푸푸 | 프 프 |
| $\overbrace{(((($ | $\overbrace{(((((($ | $\overbrace{((($ |
| ∨ ∨ | ∨ ∨ | ∨ |
| 細線 太線 | 細線 太線 | 細線 |

| | | | |
|----|----|----|-----|
| 파포 | 포피 | 피두 | 프피파 |
| { | { | { | { |

머리포마도 바르고 파기노타 커피 마시자

Handwritten examples of shorthand symbols for '파기노타' and '커피 마시자'.

(b) (파) 行까지의 연습문자

포기(抛棄) 피고(被害) 피리(巴里)
우포(牛皮) 노파(老嫗) 우포(郵票) 마피

~68~

(懸皮) 투포(投票) 차포(車票) 수포(水泡)
포지(表紙) 피차(彼此) 유포(流布) 피부(皮膚)
포(膚) 피서(避暑) 마포(馬浦)

(十三) 하행

(하)行은 원형에서 分出한(KL)의 斜線
이며 각도는 30°이다 이(하)行에서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하행의 각도가 30°임에도
不拘하고 初考時에는 각도가 높아져서 90°선
에 가까운 경향까지 이르는 예를 황망 볼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30도가 아니라 15° 정도
한다는 기원으로 쓰면 적당한 30°선이 나올 것이다
이(하)行의 각도가 너무 높아지면 文字의 美觀上
 좋지 못하다

<連記文字>

하하 러러



호호 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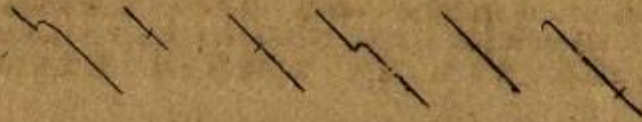
흐히



(a) 하행의 緩寫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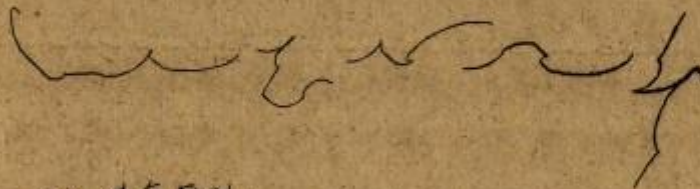
197

하하 하하 허후 후허 하후 허하



(b) 하행까지의 連結法

비가오니 어서너나자 아버지 어머니가 도라오시디



(c) 연습문제

오후 흐주서 아버지 오시디 부모 흐드러자

무효(無効) 시효(時効) 허비(虛費) 기후(氣候)

휴가(休暇) 하기(下記) 호의(好意) 하부(下部)

효자(孝子) 허사(虛捨) 허다(許多) 하사(下賜)

후사(後嗣) 흐구(糊口) 희구(希求)

무휴(無休) 흐어

이상으로 평음 140字的 說明을 끝마치기로

하겠디

2700
(註) 초보자는 細線과 太線을 가려쓰기가
감 까다로우나 이 太線은 辨腔까지의 基本
文法가 完解됨에 따라 서서히 加用적으로
해소되는 것이니, 크게 用題視 할 필요가 없다

第四章

重音 硬音

(A) 重音

우리한글의 重音은 一음을 表示시키는데
所要되는 획수는 最下 2 획으로부터 최고 9 획
이므로 辨腔까지 붙여서 總로 16 획이나 되는
놀라운 획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득모를 가장
중요시하는 득기에 있어서 이 음을 表示하는
데 이러한 15 6 획이나 요하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득기에 있어서는 용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득기 문자의 중음도 ㅍ음과 못지
않은 一劃으로 되어 있다

本 득기에 있어 一劃이라는 것은 非 單重音

뿐만 아니라 ^한호흡이. ^한말까지 ^한말이
一化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호흡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1) H 例

호흡連綴文字

개 내 대 래 애 배 새 애 재 채 개 리 피 배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위에서 모든바와 같이 (H) 예는 호흡의 (A)
의 소문을 反對적으로 붙이면 된다

다시말하면 호흡의 (A)는 5mm 국선이다. 그 半
소문만 反對적이 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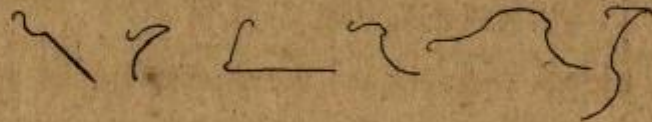
※ 위의 호흡을 써본바와 같이 호흡의 半
문은 호흡의 半소문보다 쓰기 不便하다. 그러나
호흡의 連綴法에 있어서 이 不便한 호흡의
半소문을 없애고 그대로 호흡과 같이 써
나간다

2) 호흡連綴法

572~
 (1) 첫자가 홀음이고 다음에 오는 음이 무음
 일 때에는 홀음은 음음 그대로의 寫形대로
 쓴다. 다시 말하면 첫자에 홀음이 아니고
 다음에 무음이 나올 때에는 첫자이나 음음
 그대로 음음대로 홀음+무음으로 連續하는
 것이다.

홀음의 連續法의 예

배후 재수 대기 애부 외무부 개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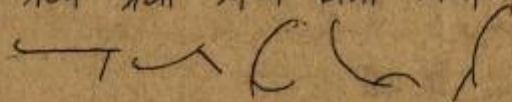


(2) 무음+홀음의 連續法

(1) 첫자가 무음이고 뒤에 홀음이 나오는
 경우의 무음+홀음의 連續法

(예)

기대 유태 시너 비애 시대



※ 兩者가 交友되면 그 交友된 聲字는 ^{73~} 半의 重音化라는 것이다. 卽, 앞文字는 平音의 半小 用 또는 半大(앞으로 배할) 을 가질 때에는 後 字만이 重音化하고 앞文字는 重音化 하지 않 는다.

(3) 重音 + 重音의 連綴法

重音이 重音될 때에는 前字의 重音은 그대로 쓰고 다음에 오는 重音은 平音 + 重音의 경우와 같다.

(7) 重音 + 重音의 연습

대개 - 대배 매머 배재 개래 에머
△ √ √ √ √ √

(4) 直線으로 된 重音 + 重音의 連綴法

직선으로 된 重音의 連綴 때에는 뒤에오는 重音의 半小用을 前대 重音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前字를 그대로 쓴다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한다

276
(예) 개개 대대 재재 해해 개개



※ 이 連続되는 位置는 半小冊을 붙여 쓰는 位置에서 半小冊을 그대로 쓴다

<練習問題>

해가지다 가해가 새로히 어제부터
제도가 대개가 내세우다 구네.
대조하라 부패 노래하다 어제
이상의 흐름 連續法은 前(가) 例만 守
한된 것이 아니라 흐름全體의 全例에
해당되는 것이다

(=) 기 例

(가) 例은 前項 (가) 例을 大線으로
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 例에 半小冊을 反対側에
붙인 것이다

< 變記文字 >

75~

게 가 다 라 나 파 사 자 차 세 아 바 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① 첫번자가 重音이고 다음이 平音일 때의 重綴法

[例] 세구도 도기 세기 세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② 重音+重音인 경우의 重綴法

세기 배지 해애라 세래 래세 해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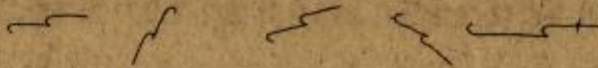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③ 平音+重音의 重綴法

[例] 시기 지혜 지세 지세 씨게 카애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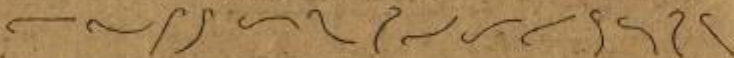
④ 直線으로 同行의 重音+重音의 重綴方法

176
 게게 데데 체체 해해 기제가


(3) 나제

(나) 제은 (나) 제의 = 음의 2음간 타점이 (나) 제의
 半小節을 反對側으로 붙인 것이다

<連記文字>

과와 파와 피와 사와 좌와 탁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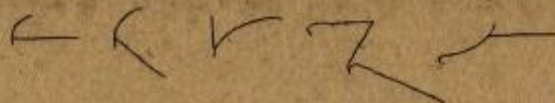
(1) 음음 + 平음의 連綴法

(例) 과거 화가 파도 좌우 작기 과거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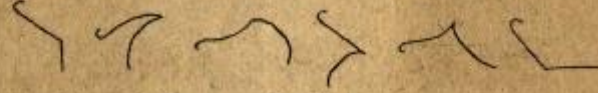
(2) 平음 + 음음의 連綴法

(例) 사과 소화 이좌 과도화 의과



172
(1) 重音+平音의 連綴法

(例) 회의 죄수 외투 회수 외부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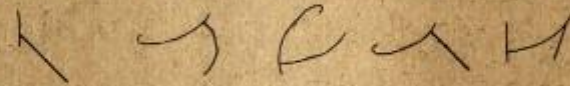


(2) 平音+重音의 連綴法

사회 해외 회두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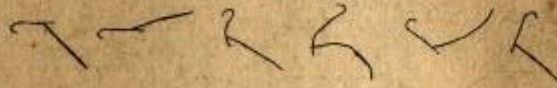


이회 유래 시의 유회 이외도



(3) 重音+重音의 連綴法

개회 개회 폐회 처회 해회 대회



외세 최대 외래 애회 외뢰



(2) 直線의 重音+重音의 連綴法

피피 피피 피피 피피 피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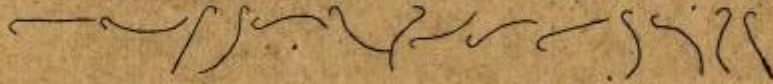


(3) 3行

(가) 行은 (나) 行의 3倍인 同時에 (이) 行의 半小丹을 反對側에 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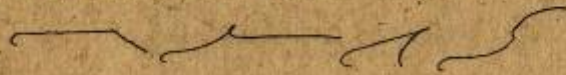
< 連綴文字 >

키 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1) 重音+平音의 連綴法

(例) 키하 뒤기 취소 뒤조



(2) 平音+重音의 連綴法

~80~

(例) 시위 지위 비위



(例) 소위 보위 주위 오위



(㉔) 重音 + 重音의 連綴法

(例) 위대 부위 위대



(㉕) 重音 + 重音의 連綴法

(例) 키키 키위 키키 키키



(㉖) 기행

(가) 行은 (나) 行의 3倍이다

다음에 重音綴字法은 上記의 例와 同一하기 爲문에 略하기로 한다

<連綴文字>

에 「애」 라고 하면 된다

(2) 「대」 کے 경우

「대」가 나을 때에는 「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代用하며 그文의 前後 관계라든가
또는 한개의 단어 자체에 있어서도 「기」인지
「대」인지 確然히 들어보라 왜냐하면 써놓은
특기문자대로 「기」로 읽어서 말이 안될 때
에는 「대」로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

(例) 예술 (藝術) 예술 「기」 可 解 釈 可
예술 「대」 可 可
예배 (禮拜) 예배 「기」 可 可 可
예배 「대」 " " 可

(3) 「내」 کے 경우

「내」가 나을 때에는 全般으로 「내」로
代用한다 聲지 聲함에 있어서 우리가 不常時
에 聲할 때는 兩聲의 正確한 聲고別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나 이것이 漢字로
表示할 때에는 文章의 前後를 보지 않아도 그

單音은 明確하게 들어난다.

(B) 硬音

<硬音의 連記文字>

카 카 커 커 꼬 꼬 쿠 쿠 꼬 커

~~~~~

따따 터 터 또 또 투 투 으터

~~~~~

빠빠 버 버 뵤 뵤 뷔 뷔 뷔 뷔

~~~~~

차차 써 써 쏘 쏘 쑤 쑤 쓰 쓰

~~~~~

짜 짜 저 저 쯤 쯤 쯤 쯤

~~~~~

우리 한글로서는 硬音이 50개가 있으며

또한 平聲에 있어서 어느부분 軟音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 속기문자에 있어

서는 이 硬音이 50개는 전부 있으나 가끔씩 硬

音의 文字를 쓰지 않고 平音文字로 代用하는 것이



~84~  
부음에 있어서는 그 動作이 一副 變遷의  
發音에 있어서는 그 動作이 = 動作으로 되는  
까닭이다

本 字에 있어서 한개의 음을 表現하는  
데 두 動作을 요하는 것은 本項 發音 變이다

그러나 이 動作도 前項의 바와 같이 부음  
으로 代用하면 發音에 있어서는 發音의  
두 動作도 一副으로 할 수 있다

(예) 하루나비를 하루나비로 쓴다  
가 닭미를 가 닭미로 쓴다  
따라서를 따라서로 쓴다

上記 例類에서 어떻게 이것을 判定하는  
나 하던 바기에 「하루나비」 「또는」 「따라서」  
등의 시험문제를 놓고 풀린 글자를 고쳐라  
하던 필면적으로 「하루나비」 「따라서」 「또는」  
이라고 밖에는 修正할 수 없을 것이다

25  
第五章

받침법

받침 위치 一覽表 (가행과 다行에用)

平聲

魚聲



한글에 있어서의 받침은 글자 맞에 받침을 하는 것이나 본 속기 법에 있어서는 그와 反쳐서 文符의 先端이다. 받침을 하게 된다

圓文에 있어서는 음소리 14聲와 雙받침등 多數하나 本 속기에 있어서는 7개로 하고 나머지 받침을 代用키로 한다. 한글에 있어서는 한글자의 末端에다가 符號를 연결하여 一線化 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의 位置가 中同. 혹은 글에 올 때에는 모든 받침은 생략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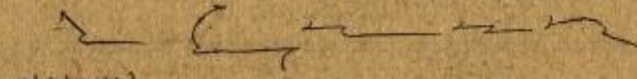




세 인다.

287~

(1) 화교 죽기사 각기 각각 목하



각하께서



(2) 사력 사각 소남비가 다각적으로



사적 적적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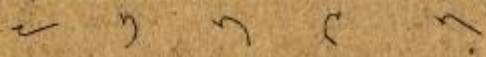
\* 半小冊이 있는 글자의 (1) 받침은 平聲과 같은 방법으로 連하되 半小冊의 끝을 앞음의 末聲에서 앞으로 내린다

(b) <半小冊의 받침 속기문자>

각 낙 약 락 약 약 삭 약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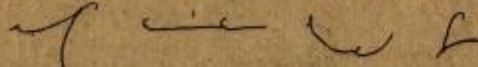
착 각 탁 팍 학



(두달에 여러 半小冊 1 받침은 小冊이 있는

~88~

1 받침과 뒤-하게 씀

(例) 옥석 귀적 옥의 대적  


(ㄱ) 연습문제

- 곡석(穀石) 하복(夏服) 악기(樂器)
- 각루(激溜) 학기(學期) 각하(却下)
- 기독교(基督教) 미국(美國) 거각(佞格)
- 귀국(歸國) 국적(國籍) 죽목(祝祝)
- 식목(食慾) 사복(私服) 식목(植木)

(註) 이 받침 礻는 그 位置를 반드시  
 右측의 小斗이 있는側 다시말하면 正側에다  
 붙여야 한다 만약 그 위치가 反對側으로 가게되  
 면 그 받침은 右측의 「礻」 받침이 아니고 左측의  
 「礻」 받침이 되는 까닭이다

한글에는 (ㄱ)과 (ㄴ)이 승하여 (ㄹ)이란 받  
 받침이 있는데 이러한 받침은 아래와 같이 변  
 화된다

이와 같은 모든 받침은 받침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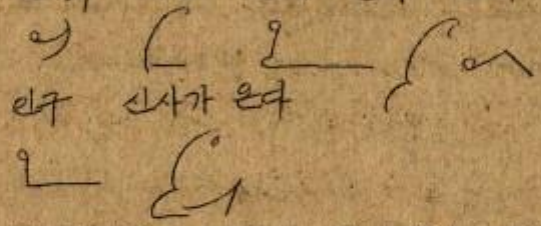


190~

간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간 단 단  
ㄷ ㄷ ㄷ

(例) 단락 시간 단기 신사 전파



(b) (1) 반침을 가진후가 중간후는 끝이 들  
어는 (2) 반침의 소파이 생략되고 두경화되고  
단기 즉 (3) 반침 글자를 앞 문자 耑下  
部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이를 두면 필연적으  
로 (1) 반침이 된다

(例) 간형이 간성한 우선적 선문제 혼란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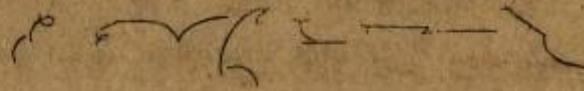


(c) 同행의 직선으로 된 1 반침 重綴時도  
앞문의 正則만으로 약간 들어가면 된다  
(重綴法과 혼동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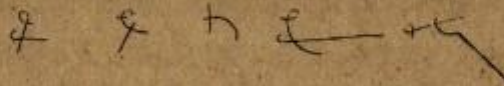
192~

(예) 실선 원주 실선 발과 글썽 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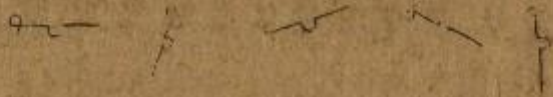
b) "ㄹ" 받침 가진 자가 中間 혹은 끝에 올 때에는 亦 (2) 받침의 形体는 省略하고 無形化된다 즉 받침 가진 자의 先端으로 앞文字의 中間을 절단 시키면 그 절단 交叉된 形이 곧 (2) 받침이 된다

(예) 갈갈 발갈 이갈 풀갈 흘발후



c) 直線同行의 重綴時는 (2) 받침의 각도가 같으므로 相互 交叉 시킬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한다

(예) 갈갈 갈갈 갈갈 할할 일일







1942  
(b) "ㄷ" 받침이 중간 혹은 끝에 나올 때  
에는 그 받침을 없애버리고 앞자의 끝에 약간의  
간격을 둔다

예) 아감 사감 유감 아음 결합

아 — ( 사 — 유 — 아 — 음 )

※ (a) 받침과 (b) 받침의 連續法이 같으므로  
혼동되지 않을까 의심하겠지만 예에서 보듯이와  
같이 유감을 유감으로 변문할 속기사는  
없을 줄 안다

(c) 변문문제

사실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조국  
근대화 과업을 위해서 단결되어야 한다  
오늘까지가 아감날이다. 날씨가 참 좋다

(d) ㅂ 받침

(a) ㅂ 받침은 文字의 正側 後端에 加點을  
찍어준다

< ㅂ 받침 속기문자 >

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㉔) 卍卍卍이 붙은 (卍) 받침은 실제상그리 사용되  
지 않는다 다만 연습하디 두자 후 때로 사용시  
가 있어도 卍卍이 되는 (卍) 받침으로 代用해도  
可함

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갑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㉕) 갑부 갑부 갑부 갑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㉗) (㉘) 받침을 가진 후가 中위 후은 끝에 오을  
때에는 (㉘) 받침의 形体는 생략되고 역시 무형  
화되어 (卍) 받침을 가진 후의 先聲과 中間  
간격을 두면 필연적으로 (卍) 받침이 된다

(㉙) 티갑 티갑 티갑 티갑 티갑 티갑 티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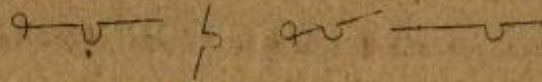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리) 받침의 소용을 2倍로 한다

곳곳 다닷 찻찻 그것이



<권습문제>

살곳이 없어 헤메이고 왔다 저곳까지  
빨리 가자

할아버지께서 갓을 찾으신다

이웃집에 사는 옥보이가 온다

(七) 0 받침

(ㄴ) 0 받침은 (ㄴ) 받침과 形体에 있어서  
뒤-하고 (ㄴ) 받침보다 3배 크게 쓴다

<0 받침 속기문자>

강 남 당 망 양 방 상 양 장 창 강 탕 광 향 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강 남 당 망 양 방 상 양 장 창 강 탕 광 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198-

(6) "o" 받침을 가진 자가 中間 혹은 글자  
에 나올때 (o) 받침은 생략되고 無用化한다

(6) 받침을 가진 자를 앞자의 下端 中間位置  
에 놓으면 判然적으로 (o) 받침이 된다

(예) 강강 천강 인강 낙동강 대동강 정강방위

ㄱ ㄷ ㄱ ㄷ ㄴ ㄹ ㅇ

(o) 직선으로 된 同行의 (o) 받침 連綴는

(6) 받침의 경우와 같이 正側 공간에 간격을 둔다

(예) 당당한 강강 창강 앙앙 향향

ㄱ ㄷ ㄱ ㄷ ㄴ ㄹ ㅇ

2. 重音 받침法

(1) 重音 (2) 받침

(d) 重音의 (1) 받침을 가진 자가 첫자로  
나올때 예는 重音의 (1) 받침은 正側에  
일률적으로 붙이진 않는다 重音의 반대로 곡  
선에는 正側 直線에는 反側이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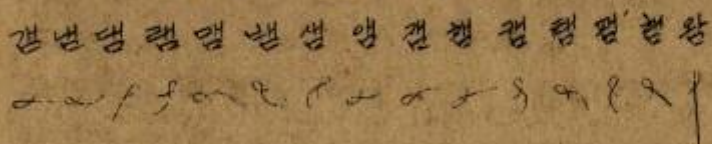
(예) 팔월 시월 구월 보월 다월기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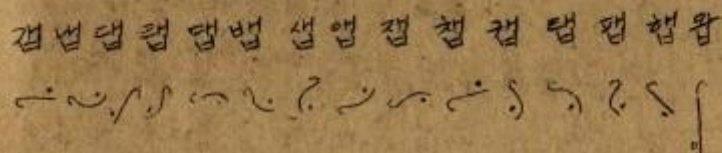
(50) 호흡의 경과 반발침

(이과 비) 반침은 실제상 그리 사용치 않고  
혹 몇자 사용되나 이 역시 호흡의 조성에  
불리하다

<호흡의 경과 반발침의 속기문자>



<호흡의 경과 반발침의 속기문자>







을 때는 중음의 (나) 발음 <sup>7/032</sup> 連續法과 같은  
大冊으로 돌린다.

(예) 수행 상황 인생 용맹 전쟁

ㄹ ㄹ ㄹ ㄹ ㄹ

(c) 연습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복잡한 본 속기문자의  
平음 重음 硬음 발음은 모든 것은 습득 하였다  
이상의 文字를 가지면 우리 한글 발음으로  
되는 연설·강연·라디오 방송 모든 것을 쓰기  
문자로 기록해서 빠른 시간내 그야말로  
말의 사진기와 같이 번文할 수가 있게  
되었다.

## 第六章

教詞 度量 衡器의 略法

(A) 教詞

算用 教詞는 아라비아 수자와 四算의

<sup>1104</sup>  
 數單位号와 併合하여 사용한다 숫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은 새삼스러히 능률적  
 書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문자에 해당  
 하는 文字를 사용하는 것이다 연이나 百  
 단위 이상만은 능률적 記號를 기하기 위하여  
 例外로 前項 다른 文字를 사용한 것이다

### 算用數字

百單位

└ 2 ─ 3 ─ 4 ─ 5 ─ 6 ─ 7 ─ 8 ─ 9 ─

千單位

✓ 2 ✓ 3 ✓ 4 ✓ 5 ✓ 6 ✓ 7 ✓ 8 ✓ 9 ✓

萬單位

└ 2 ─ 3 ─ 4 ─ 5 ─ 6 ─ 7 ─ 8 ─ 9 ─

億單位

└ 2 ─ 3 ─ 4 ─ 5 ─ 6 ─ 7 ─ 8 ─ 9 ─

※ 算用數詞에 있어서 拾千위와 不點數  
 不點數인 = 三, 四, 五, 七, 八 百, = 三拾 등의  
 숫자가 나올 때에는 10단위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不點 숫자는 數字 下段에 點을 찍어 表示한다



(1) 算用数字의 億用法

205

2億6475萬    5百萬    74萬  
 2 / 6750    5    7  
 2百億    34億    507億  
 2    3    507

<연습문제>

419 연두혁명 전에 錦山蔘業組合에서 約  
 94萬 원에 달하는 蔘業資金을 交際費 또는  
 接待費로 流用 消費한 故로 金庫지점에서  
 장부까지 압수하고 명 수사를 전개하고 있어  
 불친 사건의 전모가 밝혀 지리란 事다

同組合에서는 4289年度에 農協銀行에서  
 44萬 원 4290年度에 一億 57萬 원을 借  
 하여 蔘耕作者 94名中 수명에게 總額  
 5,900 萬 원을 大부하고 나머지 中에서 848百  
 萬 원은 蔘業資金으로 組合自体에서 運用하였다는

1106~

것인데 사업은 고사하고 若機關頭  
某某人事들의 전대비와 교체비로  
거의 도비하여 버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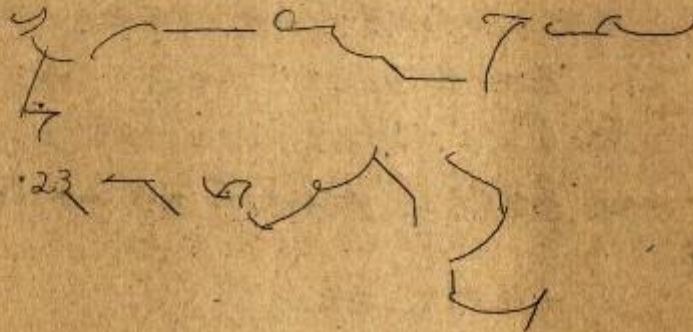
特殊單位

(1) 第	1	2	3	4	5	6	7	8	9
次	1	2	3	4	5	6	7	8	9
回	1	2	3	4	5	6	7	8	9

·32 17 1 2

第 32 次 17 回 第 1 回 第 2 回

(例) 此리번을 거쳐 지음工夫 하고 계신  
教材는 第 23 回 国会法制委员会  
회의 会談錄입니다



(4) 年 月 日 使用法

年月日 어의 数字의 끝에 받침을  
사용해서 連續 시키고 年 4290 年 10月 26日 等  
의 年이 年 月 日 三等기 구비되었을 때에는  
年을 中線 月을 上線 日을 中線에 쓰는  
法도 있다 그러나 而紀年 年기를 斷할 때  
는 各其頭字단을 年이 (d) (se) 라고 쓰면  
充分施 것이다

<例> 年 4290 年 10月 25日 而紀 1957 年

9月 17日  
 $4290^{10} 25$  (1957<sup>9</sup> 17)

90 年 5 月 13 日

90<sup>5</sup> 13

(5) 時分秒 略法

時分秒의 表示方法은 (시) (분) (초)

를 아라비아 数字 다음에

一單語式 쓴다



108 (例) 12月 13日 10시 35분 13초

12  
13

10  
13  
35

(2) %

퍼센트는 해당되는 수자중간에 %의 (%)  
를 삭제한 / 단을 그어두면 된다

23% 5% 35.9% 50%

~~23~~

~~5~~

~~35.9~~

~~50~~

(例) 労務側에서는 노동자들의 労賃을 12.3  
%로 2/3로 삭감하였읍니다

12.3%  
2/3

(3) 割

割은 (割)의 聲音 2行을 数字 中間에 그어준다

(例) 35割 28割 2割

~~35~~

~~28~~

~~2~~

(例) 通학생들의 면리를 돕기 위하여 <sup>209</sup>  
 교통부에서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3월  
 금액에 주기로 결정 하였다

### (B) 分数

숙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分数表示方法의 正反對로 먼저 乘算되  
 는 分母부터 쓰고 그아래에 分子를 쓴다

<例> 을 을 을 을 3分之 1을 3을 1을  
 <이와 같이 정반대이다>

### B. 度量衡計

度量衡計의 略法은 學校에서 배우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略法을 숙기에  
 있어서도 그대로 使用한다. 킬로그램은 (kg)  
 구램 (g) 센티미터 (cm) 미터 (m) 킬로미터 (km)  
 리터 (L) 度 (°) 噸 (t) 에이커 (a.k) 피타루 (ft)

<sup>11102</sup>  
아스(at) 화트(fet) 로 사용한다.

## 第七章

### 가갸語와 上下中線의 區別

#### A. 가갸語

가갸語의 辨기법에 있어서는 두가지法으로 나누어 쓸수 있다 그 一은 (3行)이라든가 (스포)라든가 全然 국어화된 외래어는 무라기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단어이기 때등에 국기문자 또는 符號(스펠인)의 첫등만으로도 略符化 시킬수 있다 其 一은 예를 들어 「데모크리시」 「이데모르기」 등이나 時事用語에 있어서는 명어에 능동한 符號(스펠인)의 첫자와 끝자만으로서 表示하고 전면 명문을 譯하는 사람은 自己가 力을 不문이나 국기문으로 全部 쓸수 밖에 없다 이 외래어 辨기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외래어 국기문자를 한자 국기문자와 混동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하기 쉬우니 주의를 요한다



○ 上中下線

本 쓰기 법에는 그 위치에 있어서 上中下線으로  
 區別되어 있다 즉 上中下선이란 말으로 각  
 種多樣의 약자부호가 나오게 되며 이 약자약부  
 도 분치라 하면 어떤 하나의 基本文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略符略字를 일반문자와  
 같은 위치에서 나열시켜 놓으면 약부약자라는  
 特異한 存在로서는 성과를 充分히 表現할 수  
 없으므로 이 약부약자의 특수 사용을 一目  
 了然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문자보다 특별  
 위치에 畵線시킨 것인데 上선이란 中선(元位置)  
 보통문의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를 말함이다  
 같은 약부약자라도 이것이 상선에 놓여진 것  
 과 하선에 놓여진 것에 따라 變은 全然  
 다른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當황 하지 말고  
 上中下선을 가려서면 變은 正確 하다



~112~

예) 나는 세본이 감의하신 문체에 대해서  
시간이 약 7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답변은 제27차 奏教時  
에 래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예) 上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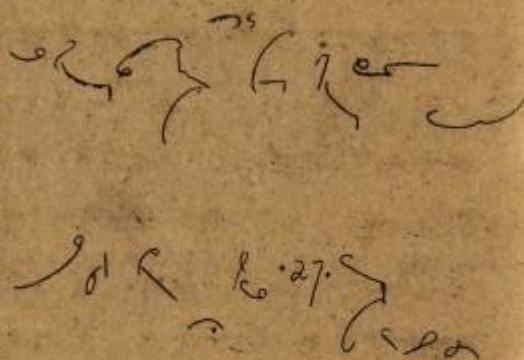
中線

下線

上線

无位置

下線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배를 上線  
略符는 보통의 位置보다 약간 높이 써나  
고 下線에는 주로 앞으로 배를 등사의  
動詞의 活用略符를 无位置보다 약간 나  
스면 된다

211

## 第八章 省略法

4. 「가」와 「이」 그리고 「히」의 省略

문장의 語尾에 붙어 나오는 (가)와 (이)  
그리고 (히)의 생략은 句法의 主語는 主語의 生命은  
안음 一 副을 全文의 句法의 關係를 안어  
약할 수 있으며 變文에 있어서도 然다 前.  
한(가)는 各行 基本文字를 약간 2어 주고  
이)는 基本 문자의 (이)를 약간 2어 준다 그리고  
(히)도 역시 (히)의 基本 문자를 약간 2어 준다  
但하다 (가)와(이) 그리고(히)의 생략이 元文에  
있어서 혼동할까 의문이 나겠지만 이는  
문장의 어미에 붙어 省略되므로 혼동할까  
같은 文書가 然다

(예) 우리가 저이가 네가 그문제가 大難이

~~~~~


224~

<例> 우리나라가 萬葉國家임은 世界 어느 나라
國民이라도 認識하고 있을 것이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획을 나타내는 예시

도저히 맛땅리 당연히 事實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획을 나타내는 예시

우리民族이 反英民族의 一人者로 세계된 것은

한글 자음과 모음의 획을 나타내는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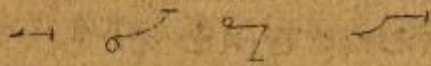
우유히 上端와 如히 大端의

한글 자음과 모음의 획을 나타내는 예시

ㅅ 置 音 符

置音符号를 表示하는 符호로 韓字에서는
(々) 國文에서는 (〃) 이 사용되고 있다 本
속기에 있어서는 길이 2mm 가량되는 直線이며
부호는 중목원 문자 符호에다가 符호의 中間
을 連結시키는 것이다

<예> 각각 왕왕 간다간다 아가아가 ~15



C. 重音符号

한 문장에 同音가 중복된 것은 重音이지만 문장에서 同一한 어구가 중복될 때는 重音라 하겠다

重音란 同一한 의미를 강조하는데 使用되는 语法이다. 이런 때에는 중복된 말은 二重으로 쓰이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여 그 부호와 表示로서 重音임을 表示하는 것이다. 그 形은 波形으로서 길이는 一定치 않다

이는 큰 줄목되는 글자의 길이와 同一한 까닭이다. 重音과 如히 前後에 겹쳐서 쓰이지 않고 獨立形으로 되어 있다

(예) 練習에 任事만하면 숙기들은 向上한다

~116~

그리고 重疊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重疊中
에 새로운 말이 끼이면 중어 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例> 편습단 하면 죽기들은 向上한다
편습단 하면 죽기들은 반드시 向上한다

죽기들은 向上한다
죽기들은 반드시 向上한다

D 一般周知語 省略法

말 가운데는 비교적 같게 계속되는 대사로
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려지 있는 것이다

<例> 精神 - 到何事不成

세살버릇이 어른까지 간다

밤에 틀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

동해들과 백두산이 등의 애국가

우리의 聖賢 哲人 聖賢 詩人의 말과 죽담

이상과 같이 이러한 문장은 우리 죽기사

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을

~8~

너는 程度로 省略하였다는 한계있는
符號를 使用하는 것으로 결코 實質적이고
무관계적인 생각이나 단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證리한 일반 術知語 思想법
도 實제적인 사용면에서 볼때 그 사용법
은 매우 稀少하다

고로 實제적인 활용은 尙지 未다

